

역학 I/영양				번호: I - I - 2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영문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Related Factors in Korea Adul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병권 ¹⁾ , 홍영습 ²⁾ , 정갑열 ³⁾ , 김준연 ²⁾ 1) 동아대학교의료원 산업의학과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영문	Byoung Gwon Kim ¹⁾ , Young Seoub Hong ²⁾ , Kap Yeol Jung ³⁾ , Joon Youn Kim ²⁾ 1)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Dong-A University Hospital,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3)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김병권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심혈관계질환을 초래하는 인자로서는 복부 비만과 당대사이상, 고혈압, 지질대사이상 등이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대사성증후군이라고 한다. 최근 대사성증후군에 대해 새롭게 정의된 임상지침이 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 허리둘레가 복부비만의 지표로서 단독으로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서양인에 비해 허리둘레가 적으며, 체질량지수가 낮은 상태에서도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운 임상지침을 적용한 한국인에서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심혈관계질환의 예측인자로서 허리둘레에 대한 한국인의 적절한 기준치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비만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p> <p>2. 연구방법</p> <p>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모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검진결과와 신체계측자료가 완전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75,091명(남:47,979명, 여:27,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p> <p>3. 연구결과</p> <p>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군 41.6±8.5세, 여자군 41.1±10.4세였으며, 연령군별 분포에서 남녀 모두 30~39세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허리둘레는 남자군 82.9±7.2 cm, 여자군 71.7±7.8 cm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p<0.05). 체질량지수는 남자군의 경우 정상인 전체의 35.3 %였고, 고도비만은 2.1 %였다. 여자군의 경우 정상인 전체의 55.9 %였으며, 고도비만은 1.8 %였다.</p>					

2) 남자군과 여자군 모두 혈압 및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둘레/엉덩이둘레비, 허리둘레/신장비 및 비만도와 낮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p < 0.01$). 그리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였다($p < 0.01$).

3) 전체 연령군에서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는 허리둘레의 임계점은 남자군의 경우 82 cm(민감도는 70.7 %, 특이도는 58.7 %), 여자군의 경우 73 cm(민감도는 67.0 %, 특이도는 71.1 %)이었다.

4) NCEP ATP III의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성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남자군 6.0 %, 여자군 5.9 %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60세이상군에서는 남녀 각각 15.0 %와 27.4 %였다. 체질량지수와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허리둘레에 따른 대사성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남자군 10.3 %, 여자군 8.5 %였으며, 60세이상군에서 남자군 22.5 %, 여자군 36.2 %로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질량지수에서의 유병률은 고도비만에서 남자군 52.5 %, 여자군 55.4 %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4. 고찰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인에 비해 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허리둘레의 경우 민족에 따른 차이가 많으므로 진단기준이 서구인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기준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연구결과 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자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대사성증후군의 조기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대사성증후군, 유병률, 허리둘레, 비만, ROC곡선, 체질량지수